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21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5)

한라산 서사면의 장엄함이어

입력 : 2004. 11.19. 00:00:00



▲산세미오름 정상에서 바라본 한라산 서사면. 탐사팀은 사진 맨 오른쪽 붉은오름을 탐사한 뒤 중앙부분의 천아오름을 거쳐 산세미오름으로 이동하는 동안 한라산 서사면의 장엄함에 탄성을 질렀다./사진=강경민기자 qmkanq@hallailbo.co.kr

붉은·천아·산세미오름

탐사팀은 국립공원 구역을 벗어나 서부지역을 향해 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주의 탐사리포트는 애월읍에 위치한 붉은오름과 천아오름, 산세미오름이다.

1100도로 정상 탐라각휴게소에 이르기전 해발 1000m에서 붉은오름으로 향하기로 하고 도로변에 있는 영송(靈松)을 찾았다. 이 소나무는 높이 1m, 둘레 20m, 나이는 1백년이 넘는 적송이다. 삼다(三多), 삼무(三無)의 상징인양 여섯개의 가지가 받혀주고 있다.

이 소나무에는 전설이 있다. 한라산 산신이 타고 다니던 사슴이 죽은 자리에 이 나무가 자라나 사슴을 대하듯 쓰다듬어 키가 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나무를 '눈사슴 소낭(소나무)'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송'을 감상하고 제주조릿대 숲을 헤쳐 붉은오름으로 향했다. 중간에 계곡도 있어 오름의 경사가 녹녹치가 않다. 이 오름은 고려 1273년 여몽연합군과의 격전에서 향파두리 토성이 함락당하자 부하 70여명을 거느리고 탈출한 김통정장군이 이 곳으로 퇴각해 최후 결전을 벌이다가 부인과 함께 자결했다는 곳이다. 이 혈전으로 흠빛이 피로 물들었다고 해서 붉은오름으로 불리고 있다. 애월읍 향파두리 성과는 10km남짓 떨어져 있다.

북제주군 애월읍에는 삼별초 항쟁과 관련한 오름들이 많다. 삼별초의 항몽유적지 향파두리 토

성안에 '안오름'이라는 오름이 있다. 오름 북쪽 기슭 도로변에는 김통정 장군이 마셨다는 장수물이 있다. 또 김방경 장군이 거느린 여몽 연합군이 상륙해 서진하면서 삼별초군을 격파했던 '파군봉(破軍峰)'이 애월읍 하귀리에 있다.

붉은오름에서 천아오름까지는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한다. 중간에 표고재배용 도로를 만나면 이동이 한결 수월해진다. 표고재배장으로 활용했던 곳에는 아직도 철조망이 나무를 휘감은채 철거되지 않아 천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아오름 일대는 대규모 목장지대다. 천아오름은 제주자원 활용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장이다. 천아오름 냇가에는 오래전 부터 양수장이 시설돼 주민들이 물을 끌어다 썼을 정도로 풍부한 수원을 자랑했다.

건설교통부가 이에 착안 국비 73억여원을 들여 천아수원을 개발했으나 결국 실패작으로 끝났다. 이 수원은 지난 92~95년에 하루 취수량 5천~1만톤을 목표로 집수터널, 상수도 관로, 저수조, 취·배수시설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를 맡아 관리해 왔지만 취수량은 당초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하루 3백~4백톤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가 천아수원 취수량 부족원인·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최근 폐쇄기로 결론을 내렸다.

천아오름이 청정제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02년 3월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삼다 맑은공기'의 원재료가 바로 천아오름 일대에서 담아낸 것이다.

탐사팀은 천아오름에서 산세미오름으로 향했다. 천아오름에서는 북서방향으로 1.5km 남짓 떨어져 있다. 가시밭길 대신 목장용 도로를 이용했다. 애월 고성리 목장지대에 있는 표고 625m, 비고 100m의 오름이다. 오름 남서쪽 자락에 샘이 있어 이 오름의 유래와 관련이 깊다.

오름 북사면에는 고려 충신 김수 장군의 유적비가 세워져 있으며 그 뒤쪽에는 아담한 크기의 습지가 자리해 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붉은 오름의 기하학적 정보

붉은오름은 해발 900~1,000m의 한라산 서측 사면에 위치하며, 산체의 직경이 약 700~800m에 이르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흰색의 사장석 광물과 검은색의 휘석 광물이 많이 함유된 송이(분석)로 구성된 스트롬볼리안 분화에 의해 형성된 독립된 화산체이며, 그 분화구는 서북서방향으로 열린 형태이다. 직경이 약 200m인 반원형의 화구륜 정상에는 용암과 유사한 응결된 스패터층이 얇게 피복하고 있어 침식작용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많은 부분이 암괴상으로 파괴된 상태이다. 붉은오름은 한라산방향에서는 해발 983m

부터 산체가 시작되고 그 반대인 하류방향에서는 해발925m부터 오름산체가 시작되고 있다.

붉은오름과 같이 한라산 고지대의 사면에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화산체들은 일반적으로 한라산 정상방향에서는 오름이 시작되는 경계가 지형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반면, 하류방향은 지형경사의 변화로는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화산체의 정상부인 화구륜으로부터 오름이 시작되는 경계까지의 거리 또한 한라산 정상방향으로는 짧고 하류방향으로는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라산 고지대의 사면에 분포하는 오름들은 그 산체의 범위, 직경, 비고 등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 제시된 오름들에 관한 기하학적인 정보가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값을 나타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름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기술하는데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오름의 경계가 시작되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지형학적·지질학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 지질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